

“서로가 고마움 느끼면 절로 행복 찾아와”

“금털사자의 적자 문답처 알아”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비었음이나 신령(神靈)하고 공(空)함이나 묘(妙)함이라. 일단광명(一段光明)이 생불(生佛)의 요긴한 기틀이요, 확철사방(廓徹十方)이 범성(凡聖)의 주처(住處)로다.

계사년 새 아침에 온 국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우리 강산에 무궁화가 만발하소서. 인생을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길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할지어다.

옛날에 종심(從諗) 沙彌僧(사미승)이 출가하여 남전(南泉) 도인을 친견하니 선사께서 물으셨습디다.

“그대가 어디서 왔고?”
“서상원(瑞祥院)에서 왔습디다.”
“서상원에서 왔으면 상서스러운 상(相)을 보았는가?”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으나, 누워계신 부처님을 보았습디다.”
“네가 주인 있는 사미승인가? 주인 없는 사미승인가?”
“선사님, 정월달이 매우 추우니 귀하신 법체 유의하옵소서.”
사미승의 대답이 이와 같으니, 남전 선사께서 원주를 불러 사미승을 깨끗한 방에 모시도록 하였습디다. 온 국민 여러분, 이 두 분의 문답처를 아시겠습디니까?

약시금모사자자(若是金毛獅子子)인던 삼천리의지문답처(三千里外知問答處)리다. 만약 금털사자의 적자(嫡子)라면 삼천리 밖에서 문답처를 알리다.

“비움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계사년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모두가 함께 누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생태의 파괴, 양극화 문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나눌 때 화해하며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습디다.

남을 해치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일,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 따뜻한 손길과 넉넉한 위로와 미소를 보내는 일,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부족해도 나누고 많아도 나눌 수 있는 보살행입니다.

계사년 새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바로 내 이웃 생명이 있습니다. 베풀어! 비움과 나눔으로 자유로우소서 평화로우소서 행복하소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회복에 노력할 것”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불자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국민과 불자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고 국가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보시면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디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은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을 크게 위축시켰고 국내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국민 생활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였습디다.

우리 불교계도 변화와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화합과 소통을 하두로 인간존중과 중심의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설것습디다. 더불어 원융정신을 바탕으로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여 종교적 평화와 공존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디다.



“종교인들, 외로운 이들과 함께 하자”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그 외양(外樣)의 흉측함 속에 영생(永生)과 의술(醫術)의 신(神)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 또한 길흉(吉凶)이 둘이 아닌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 하겠습디다.

일체가 둘이 아님을 사무쳐 알고 만물이 내 몸에 계합(契合)해 있음을 절실히 이해하면, 장삼이사(張三李四)가 한 술밥을 먹고 토끼와 범이 한 굴에 머물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세상을 가꾸어 갑시다.

많은 어려움이 도래하고 큰 난관이 막아설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맑은 지혜로 헤치고 나아갑시다.

일체가 둘이 아닌 그 진리 속에서 행복의 태양은 빛나고 있으니 오늘도吉日(吉日)이요 내일도 축일(祝日)입니다.



“정진하여 관자재를 이루어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실천하는 그 자리에 새해가 찾아오니

일념보관무량겁(一念普觀無量劫) 무거무래역무주(無去無來亦無住) 여시요지삼세사(如是了知三世事) 초제방편성십력(超諸方便成十力)

끝없는 세월은 강물같이 흐르나니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며 그대로 머무는 것도 아니니라.

인생사 모든 일이 끝없이 일어나니 꿈에서 깨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한줄기 깨달음의 길이 훤히 열리리다.

정정한 연꽃이 진흙에서 솟아나듯 고통과 번뇌 속에 깨달음의 싹이 튼다. 보리의 싹은 눈 속에도 푸르고 깊은 샘의 물줄기는 쉬지 않고 흘러간다.

실천하는 그 자리에 새해가 찾아오니 정진하고 정진하여 관자재를 이루어라.

“고난 시대, 불심으로 이겨내길”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그 어느 때보다도 흑심했던 경제난과 대통령 선거의 와중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여 밝아야 할 우리의 마음은 웬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올해도 세계적 불황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 생활 또한 고달픔을 면하기 어려울 것인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가식과 위선을 과감히 걷어내고 진실한 자세로서 나를 살피고 이웃을 돌아볼 때 참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인입니다.

중중제왕의 공업(共業) 중생이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쉽사리 이루어지지겠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가는 길은 오직 자비의 힘 뿐인입니다. 가진 자의 자비와 아량으로 이웃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때만이 이 사회는 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칠 것인입니다.

자비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이 없이 사회의 화합을 부르짖는 것은 가진 자의 위선이고 기만인입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씩씩하게 헤쳐 나갑시다.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제불보살의 가지(加持)가 두루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귀의해야”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에서 말씀하시길,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커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그 지혜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무한하여 헤아릴 수 없고 더욱 인간사의 삶은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 혼돈되어 있으니 우리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세상을 슬기롭게 찾아가야 하겠습디다.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을 통하여 믿는 마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그 지혜를 열어 보여 주시고 알게 하여 깨달음으로 어려운 일이 내 앞을 가린다 하였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생길 것인입니다.

계사년 새해 우리 모두는 진솔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지혜의 문이 열리도록 정진합시다.



“자비의 삶이 펼쳐지는 한해 되길”

총지종 총무원장 지성 정사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사년 한 해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인입니다.

중중제왕의 이 세계는 나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부터 전개되는 것인입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껍질을 벗고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의 가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며, 더욱 정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남쪽바다엔 무저선이 노 젓네”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계사년 새해를 알리는 찬란한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오릅니다.

이 상서롭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아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새롭게 나아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동방인의 힘찬 발걸음은 현해탄의 거센 파도 높였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넘어서서 이제 창공을 향해 힘찬 날개를 펼쳐 새로운 보배(寶貝)를 찾아 나아가갑시다.

세상은 본디 피아(彼我)와 주객(主客)이 따로 없고 상하와 빈부귀천(貧富貴賤)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대들이며 이 세상의 모든 보배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닫혀있던 마음속의 대문지방을 활짝 열고 손에 손을 마주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오대양(五大洋)과 육대주(六大洲)를 뛰어 넘어 보적산(寶積山)에 올라가서 분수 따라 가슴 가득 보배 담아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두 함께 하나되어 태평기를 부릅시다.

높이 세운 깃발 아래 무공저(無孔笛)가 울리고 비파(琵琶) 타는 아낙들과 장고(長鼓) 치는 남정네들 취타(吹打)소리 장엄하게 온 세상에 들려오네. 동해어부(東海漁夫) 가슴에는 용광로(鎔鑪)를 품어 안고 서해바다 상공에는 무개차(無蓋車)가 비상(飛翔)하며 남쪽바다 너른 곳엔 무저선(無底船)이 노를 젓네!

“부조(扶助)하고 예경하는 세상을”

성초 정사
진각종 종인



대일(大日)의 광명이 계사년의 새아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해 새아침의 상서로운 기운이 천지에 감돌아서 지상의 모든 중생들이 안락한 새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심인전리의 종문(宗門)이 처음 법기(法旗)를 세우고 자주정신이 국민의 심전(心田)에 보금자리를 틀더니 국운융성의 큰 물결이 반도(半島)의 지평을 넘어서 세계의 방방곡곡에 한류(韓流) 등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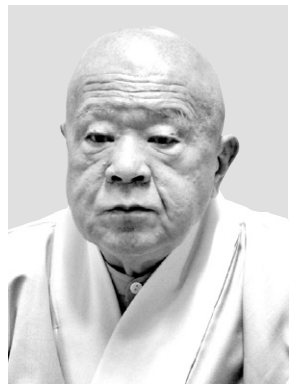
진각정법(眞覺正法)의 으뜸자리 종인원에 진각문화전승관(眞覺文化傳承館)을 건립하니 심인공부의 천년 역사를 이어갈 터전으로 삼고 불자들의 신행(信行)에 정도(正道)가 굳게 서니

평화세상이 영속(永續)하여 정도(淨土)가 건설됩니다. 중생의 분별심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 내 것 내 것 다투면서 사회를 어지럽혀도 심인(心印)을 밝혀 묘관찰지(妙觀察智)를 열면 온 우리가 상호 부조(扶助)하고 예경(禮敬)하는 이원전문(二元專門)의 조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새해의 햇살이 천년의 어둠도 순간에 밝히듯이 자성(自性)의 찬연한 광명이 중생의 미혹을 밝히면 세간의 미오(迷汚)가 정화되고 정로(正路)를 열어서 이웃이 함께 웃음 가득한 생활로 만들어 갑니다.

“모두가 융화하는 한해로”

일공 스님
원융종 종정



계사년은 원통융화(圓通融和)한 사회(人間社會)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사회, 국가 내지 전 세계에 이르기 까지 원통융화(圓通融和)돼야 합니다. 원통(圓通)은 조금도 간격이 없이 동글게 통한다는 뜻인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간격이 있으면 파탄이 올 것이며, 부모 자식에게 간격이 있으면 천륜지천(天倫地天)이 끊어지고 현재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입술 없는 이가 되며 친척, 친지, 친구, 이웃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스스로 답을 찾고 도둑을 맞이 하는 것입니다. 원통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도와주는 인도(人道)의 기본 원칙인입니다. 그렇게 통하는 곳에 만복이 따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 모략 중생하는 곳에 백가지 재앙이 뒤쫓는 것입니다.

융화는 서로 단합하고 친선하며 서로 도와서 공존(共存), 공영(共營)하는 공동생활의 규범인것인입니다.

정치에도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노사 간에 있어서도 서로 조금씩 다가서 이해하고 간격이 없이 융화한다면 이사회는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평화롭고 밝고 안락한 이상사회가 될 것인입니다.